

# '98년도 국내경제 전망

온 기 윤(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95년 하반기 이후 하강국면을 지속하였던 국내경기는 97년 중반 이후 우리 나라 수출이 회복되고, 제조업 분야의 재조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경기선행지수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경제지표로 볼 때 경기의 회복기운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경기저점이 곧 다가오거나 이미 통과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상당수 사람들의 견해였다.

그러나 11월 들어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외환시장에 일대 혼란이 야기되고 급기야 IMF로부터 긴급자금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경제회복기운이 그만 후퇴하고 말았다. 이제 우리경제는 당분간 IMF 조건에 응하여 저성장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거시경제 전망

### 외환 및 금융시장

외환시장과 환율의 향방은 앞으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외환시장 불안정과 환율급등이 외환에 대한 수요보다는 공급측에 더 큰 원인이 있으므로 외환공급 여하가 외환시장과 환율의 향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외환수요는 최근 무역수지

가 균형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가압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주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단기 원리금 상환을 위한 외환수요를 중심으로 외환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우선 연말까지 국내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달러화 규모가 200억 달러 전후에 이른다곤 볼 때 연말까지의 IMF 자금 지원 규모가 이에 미달할 경우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98년 들어 IMF의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금융시장 불안정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며,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하반기 이후에는 저성장추세에 따라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환율이 상반기에 비하여 더욱 안정된 1,100~1,200원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IMF가 98년도 경제성장률을 3%, 물가상승률을 5%로 요구할 경우 한국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통화지표, 즉, MCT(총통화+양도성정기예금증서+신탁+환매채)는 현재의 16.5%(전년대비 증가율)에서 13~14%로 하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 20% 위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회사채 유통 수익률은 98년 상반기 중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소폭 하락하여 연 17~18%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성 장

97년 우리 나라 실질 GDP성장률은 민간소비지출 부진과 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96년의 7.1%보다 크게 낮은 6%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97년 상반기중 1.5%의 감소를 보인 설비투자는 계속된 한계기업의 부도와 그로 인한 금융부문의 경색으로 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3/4분기에는 13%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설비투자 증가율이다. 내수 부문의 부진과 달리 수출은 97년 중반 이후 호조를 보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수출단가의 하락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하락 정도는 둔화되는 추세이며, 수출단가의 하락을 압도하는 수출물량의 증가로 수출은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

98년에는 경상수지와 설비투자의 향방이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98년에는 수출단가의 하락현상이 크게 둔화되고 수출물량 증가율도 호조를 지속하여 수출이 여전히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수입은 내수부문의 부진과 원화의 급격한 절하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일 것이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97년보다도 적자폭이 더욱 축소되어 균형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의 경우 97년에 -6%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나, 98년에는 저성장추세와 구조조정, 원화절하에 따른 자본재 수입부담 급증 등으로 기업들의 생산능력 확장 투자가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지출은 IMF 구제금융 도입 이후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가율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이다. 민간소비지출 역시 실업률의

상승, 임금동결 등의 여파로 크게 부진하여 증가율이 상당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물가 및 고용

IMF는 98년 물가상승률을 5%내에서 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물가의 상승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통화방출의 영향과 환율급등에 따른 원자재 수입부담으로 물가인상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업증가와 임금동결 등에 따른 구매력 감소, 정부가 인가하는 공공요금의 억제, 금리의 대폭상승에 따른 통화환수, 국제유가의 하락 가능성 등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97년 실업률은 연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3월에 3.4%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점차 낮아져, 9월말 현재 2.2%를 기록하고 있다. 98년에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실업률이 5% 가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구조조정과 관련한 실업률의 변화는 구조조정 과정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느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과정이 정리해고제의 도입, 기업에 의한 대량의 인원감축이라는 형태로 고용부문에서 급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구조조정이 근로자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사·정간의 사회적 타협을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 구조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 산업별 경기전망

### 전반적인 여건

97년 중반 이후 국내산업은 수출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생산도 점차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잇단 부

도 사태와 대외 신인도 하락, 그리고 이에 따른 외환 및 금융시장 혼란 등으로 산업 경기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IMF자금지원 이후 국내 자금 시장의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수출입 관련 금융여건도 좋지 않아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원화환율 급등이라는 측면에서는 수출여건이 양호한 편이나 세계 경기의 위축가능성과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도가능성은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수위주의 업종이나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성장 시대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이루어지면서 산업계의 판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산업연구원 분석에 의거하여 98년도 주요 업종별 산업경기 전망을 하도록 한다.

### 자동차 : 내수 크게 위축, 수출 경쟁력 개선

IMF가 요구하는 3% 이내의 경제성장률과 경제구조개선 등은 높은 실업률과 더불어 임금동결 및 감소, 물가상승, 이자율상승 등을 동반하여 자동차의 심한 내수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환율상승 및 교통세 인상에 따라 유가가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세수확보를 위해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도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내수는 신차출시, 업체들의 적극적인 판촉활동 등에도 불구하고, 98년에도 10.9%나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97년에 이어 98년도 큰 폭으로 자동차의 내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업들은 활로를 수출확대에서 찾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크게 올라 주로 결제 통화가 달러인 자동차의 경우 수출가격경쟁력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또한 임금인상 자체 분위기 확산, 기업의 경영합리화 추진 등도 비용절감을 통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우의 북미 시장 본격진출, 우리 차의 품질수준 개선, 수출차종의 다양화 등도 수출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되고 있던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이 외환위기로 인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차의 주요 경쟁상대인 일본 엔화의 약세, 북미 및 서유럽시장의 성장률 둔화, 중남미 및 동구권으로의 외환위기 확산 조짐 등은 수출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차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강력한 수출전략으로 98년도 자동차 수출은 97년보다 다소 높은 11.0%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내수의 급격한 감소, 외제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 등에 힘입어 자동차수입도 1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선 : 수주 감소, 생산은 변화 없을 듯

98년 조선산업은 BBC자금 등 외화대출에 의존하던 내수선박(LNG선 및 편의치적선박)의 발주가 해외의 대출공여 감소 및 환율상승에 의한 상환부담이 가중되면서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BBC자금으로 건조되는 선박의 발주감소에 의한 영향은 1년반~2년 후의 생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단기적인 내수위축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수요의 경우 선박의 주요 발주국이 주로 선진국 및 편의치적국, 중동의 산유국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로 인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경기조정으로 해상물동량이 크게 감소하면 선박의 발주는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환율상승이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주물량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으나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 환율이 동반상승하면서 동 효과가 일부 상쇄되고

있다. 특히 대형 조선 업체의 부도 등 국내경제의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해외선주의 발주가 기피되거나 불리한 대금지불 조건 등의 제시가 늘고 있다.

그러나 수주에서 생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선종별로 1년~2년에 이르는 조선산업은 97년 조선시황의 호조로 수주량이 크게 늘었고 업체마다 2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물론 국내 4위의 조선업체인 한라중공업의 부도로 조업에 어느 정도의 차질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산업의 경우 1998년의 생산은 다소 증가율이 둔화되어 1997년 보다 5.2% 증가한 73억 달러로 예상되며(물량기준 790만GT~820만GT로 추정), 동 건조물량은 편의치적선을 포함할 때 전량 수출선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일반기계 : 내수부진으로 밀어내기식 수출확대

1998년의 일반기계의 생산은 1997년 보다 더욱 악화되어 전년대비 4.5%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97년에 이어 1998년에도 설비투자자의 감소세(10% 수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도 전년대비 7.9%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수부진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반기계업체들(특히 중소부품업체)은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기계업체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금융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설비투자 및 국산화 개발 등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 온 결과 차입금의존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IMF 금융지원에 따라 은행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돼 차입에 의한 설비투자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1998년 일반기계의 수출은 원화 가치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가격경쟁력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 가치의 약세도 예상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지역인 동남아시아, 중국 등의 경우 수출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중남미 지역에도 최근의 외환위기가 확산될 조짐이 있는 등 우리의 수출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금속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 운반하역기계 등의 경우 관련업체들이 내수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수출시장 개척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의 일반기계 수출의 특징은 채산성개선이 아니라 밀어내기식의 수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를 수출하기 위한 해외 판매망, A/S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채산성이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다.

1998년의 일반기계의 수입은 내수가 7.9% 감소한 41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설비투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대비 10.5% 감소한 156억5,400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철강 : 내수 침체, 수출확대로 활로 모색

98년 우리 나라 철강산업은 최근 수년간 신·증설된 설비들의 가동개시 및 조업정상화로 조강생산이 4,288만 톤으로 3%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인 슬래브와 열연강관의 부족이 가중되는 등 설비간의 불균형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상승, 자금조달의 어려움, 내수증가의 불투명으로 인해 신규설비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 철강소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주요 철강수요산업의 경기부진 및 SOC투자 감소, 민간건설투자 위축으로 인해 97년보다 5.7% 감소한 3,668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능력 증가로 수출여력이 늘어난 철강업체들은 철강수출로 난국을 타개하려 할 것이므로 98년 철강수출은 9.5% 증가한 1,25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남아, 일본, 중국 등 주요 철강수출지역의 경기부진으로 수출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수입은 내수부진, 국내생산 확대, 수입가격 상승으로 97년보다 27.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원화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의 수입가격이 상승되면서 원가부담이 가중, 철강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최근 이루어진 철근가격 인상처럼 내수부진 속에서도 철강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IMF의 구조조정 요구와 기업 매수합병의 활성화 등으로 기반이 취약한 중소 철강업체들의 경우 흡수·통합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부실업체중 삼미특수강 등 시장지배력이 크고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체는 기존 철강업체들에 조기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채비율이 높아 정상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투입이 요구되는 한보철강의 경우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 가동률 저하 및 수익성 악화로 신기술 개발 및 신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 감소가 우려되고 가동률 유지를 위한 수출확대 경쟁이 자칫 저가 출혈수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 철강업체들은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조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업계 전체로도 물류·마케팅 등에서 공동의 활용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과거와 같은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적인 설비증설보다는 국내외시장, 기술 변화 추이, 소비패턴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섬유 : 내수의류경기 위축

IMF의 구제금융지원에 따른 정부의 긴축정책과 소비심리의 위축 등으로 내수의류부문의 침체가 예

상된다. 이에 따라 백화점 등의 할인세일 확대 등 적극적인 판촉활동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 비해 20~30% 이상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반면에 1990년 이후 의류수출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그 동안 수출에서 내수부진으로 전환하였던 의류업체들이 다시 수출에 참여함으로써 의류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최근의 원화절하는 섬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섬유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과의 경쟁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인해 그 영향이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나라의 화섬사 및 화섬직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부진이 예상되고 있어 1997년과 같은 화섬사의 대폭적인 대중국 수출 신장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도 섬유수출은 구정 이후 화섬직물의 대홍콩 수출 회복 여부가 변수가 될 것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 1997년에 비해 3.2% 증가한 19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류부문인 면방 및 모방업은 생산설비 감축 등으로 인해 최근 생산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구조조정은 IMF시대를 맞이하여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등 개도국의 값싼 수입제품의 내수시장 침투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오히려 하류부문인 의류제품 수출부진에 따른 내수수요 둔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된 화섬분야의 경우에는 경쟁국에 비해 생산원가가 높아 원화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만이나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들도 자국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은 급격한 원화절하와 소비심리의 위축 등 국내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인해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제품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년대비 6.5% 감소가 예상된다. A